

<2022년 6월 24일 금요일 새벽, 주 말씀>

1. 그때는 자기가 좋아서 행한 것 같아도, 후에는 성령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자기를 쓰고 행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.
2. 성령님은 사람이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배우고 행하게 하면서, 그것을 통해 성령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하게 하신다.
3. 자기가 행할 것 속에 성령님이 행해 주셔야 될 것도 있다. 자기 것만 알고 행하면, 나머지는 성령님이 알아서 행해 주신다. 항상 성령님을 생각하고 마음에 두고 살아라. 그래야 성령님이 자기가 행할 것을 생각나게 해 주신다.
4. 자기가 성령님이 생각한 바를 행하고자 집중해야만, 성령님이 쉽게 생각나게 감동시켜 행하게 하신다. 성령과 기도와 대화다.
5. 사람의 눈은 보통 때는 여러 가지를 동시에 보기도 하지만, 집중할 때는 한 가지만 침단으로 보게 된다. 뇌도 눈과 같다.
6. 뇌는 집중할 때 한 가지만 침단으로 생각한다. 두 가지를 동시에 생각하지 못한다. 그러므로 생각을 성령님께 집중하여 그 인도하심을 깨달아라.
7. 눈도, 마음도, 생각도 집중해야 생각나고 보인다.
8. 마음과 생각을 집중해야 목적인 것이 보이고 들리고 깨달아진다.